

❖ 그동안 감사한 유럽난민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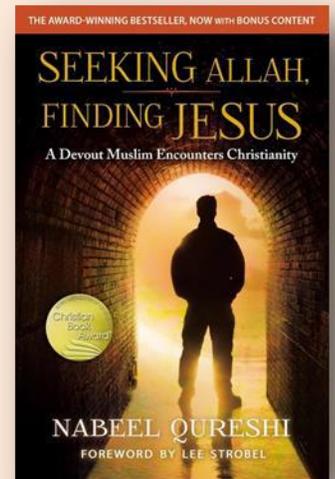
- 이축복 선교사

난민사역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Khodad & Sharifa 부부는 레스보스에서 난민 ID 를 받고도 소망교회를 섬기기 위해 6 개월을 더 있다가 독일로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의 헌신의 고맙다는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난민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끔 독일에서 소식을 듣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테네서 만난 형제 Emad 은 내가 만난 난민들 중에 참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는 무슬림이었고, 난민으로 그리스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그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실하게 그 모든 아픔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달려왔었습니다. 지금 Emad 은 아테네서 신학교졸업후 전도자로, 교회사역으로, 신학교통역으로 섬기며 그는 독일로 가지 않고 아테네서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 내 친구 **Cherry** 이야기

현재 텍사스 World Relief 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Cherry 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으로 섬기는 멋진 친구입니다. 그녀는 올 여름 자신의 가족과 함께 유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영국을 갔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이가 아파서 급하게 런던에 있는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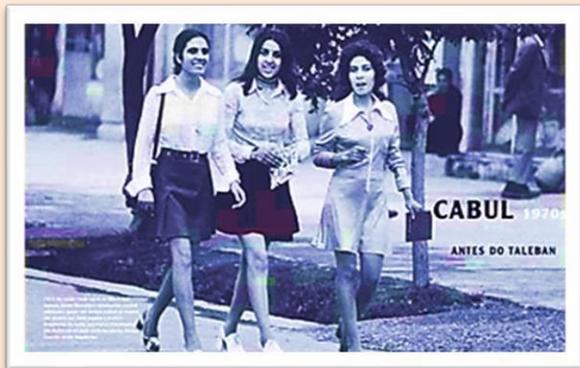
Cherry 의 남편은 미국에서 치과전문으로 은퇴한 분입니다. 남편의 안내로 영국 런던의 치과에 갔는데 담당의사가 파키스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herry 는 그 의사에게 나는 크리스천인데 당신 예수의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의사 대답이, 자신은 무슬림이었는데, 미국의 파키스탄인 의사 **Nabeel Qureshi** 의 간증을 읽고 그의 모든 일가 친척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간증을 듣고, Cherry 는 너무 놀라와서, 모든 상황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놀랍다고 간증했습니다.



참고로 Nabeel Qureshi 는 파키스탄계 미국인 기독교 변증 가였고, 그는 파키스탄의 독실한 이슬람가문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쿠레시의 조부모는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선교사였고, 그는 의과대학 재학당시 룸메이트를 통해 복음의 역사성과 예수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고, 34 세의 나이로 사망했지만 그의 저서를(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텍사스 난민사역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난민들에게 기초영어를 가르치는 ESL Class 참석해서 영어 assist 하고 또 아프간 통역도 하며 돕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삼 캔디를 줬더니, 아프간 자매가 하는 말이 이것이 할랄인지 묻는 겁니다.



올 여름 이곳 Fort Worth 는 무척 덥고 습했습니다. 이 더위에도 아프간 자매들은 긴 소매에 머리에는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아프간이 탈레반이 다스리기 전 50 년 전에는 여성들도 히잡도 쓰지 않고 복장이 자유로웠는데 왜 너는 탈레반을 싫어하면서 탈레반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지 물었습니다.

또 제가 돌보는 아프간 가정이 있습니다. 3 가족이 사는데 남편은 미군통역으로 일했었고, 부인과 딸은 아주 약해 보였는데 지금 미국에 들어 온지 3 주가 되어가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 부인과 딸은 아직도 몸이 너무 약해서 어제는 고기를 좀 먹이고 싶어서 너희들 고기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미국마켓에서 모든 식료품은 사지만 고기는 할랄프드를 먹는다고 하더군요.

아프간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히잡을 안 쓰는 것도 죄가 아니다, 캔디나 먹는 것도 죄가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또 그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갇혀 살던 쥐에게 자유를 줘도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슬람의 규율에 대해서 여과없이 습관처럼 따르는 율법적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정착한지 이제 7 개월이 넘어갑니다. 사역의 열매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은 여러 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Kairos** 를 기다리며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중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1. 이곳에 Breakthrough 가 일어나도록, 부흥을 주시도록 (Revival)
2. Dallas & Fort Worth 아프간교회가 세워지도록 (Church Planting)
3. 그리스에서 사역할 때 오랫동안 함께했던 Emad 형제 가족이 미국에 와서 함께 교회개척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의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뿐 아니라 지금 달라스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H 형제 가정도 섬기는 사역위에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4. 그동안 상황이 어려워 인터넷사역을 내려 놓고 있었는데 인터넷 사역도 믿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 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 한국방문

저는 GP 모임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10 월 9 일 ~ 31 일까지의 모든 일정위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닛시!!

2023. 10. 3.
Double Blessing